

# 배구선수들 '마취 없이 치과치료' 한다고?

마취약에 도핑 금지성분 포함돼 팬들이 선물한 수제음식 못 먹고 감기몸살도 약 먹지 않고 버티야



●팬들이 선물한 수제 음식을 못 먹는 선수들  
바로 도핑 때문이다. 수제음식의 성분 가운데 혹시 도핑에 걸릴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기에 시즌 도중 선수들은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음식물을 함부로 먹지 못한다. 기성 제품이라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심해야 한다. 만일 금지된 성분이 음식에 있는데 선수가 먹고 도핑테스트에 걸렸을 경우 책임은 오롯이 선수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남자구단의 한 사무국장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팬들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먹어야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염려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대신 선수들은 항상 팬들의 정성어린 선물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 원칙이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기는 하지만 여자구단은 남자구단만큼 선물을 통제하지 않는다. 여자구단의 한 사무국장은 "팬들이 택배나 소포로 보내주는 선물 가운데 음식도 많다. 선수들이 속소의 자기방으로 가져가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별 탈 없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간혹 선수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이 보내준 음식선물을 자랑하고 동료들과 나눠먹기도 한다. 비시즌 때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즌 때라면 다르다. 그래서 IBK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은 간혹 선수들에게 통지하고 스태프를 시켜 선수들의 방에서 음식물이 있으면 거둬낸다. 도핑도 문제지만 간식을 먹고 체중이 늘는 것도 막기 위한 조치다. 대부분 여자팀 감독들은 남자팀들과 달리 이런 세세한 걱정까지도 해야 한다.

●시즌 중에는 마취 없이 치과치료를 해야  
비슷한 이유로 선수들은 시즌 때 치과에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일반인들도 치과에 가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지만 시즌 때는 더더욱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야 한다면 선수들은 마취 없이 치료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 마취약 성분은 도핑에 걸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선수들은 가능하면 비시즌 때 치과치료를 마쳐야 한다. 모 감독은 외국인선수가 치과치료를 받으러가자 의사와 직접 통화해서 도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까지 했다는 일화도 있다.

감기도 마찬가지다. 공기가 탁한 실내에서 오래시간을 보내다보니 건강한 선수들도 가끔 감기에 걸릴 때가 있다. 이 때도 선수들은 감기약을 먹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즌을 앞두고 각 구단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선수단의 독감예방주사 맞기다. 감기는 어떻게든 버티다 해도 독감은 증세가 심하고 속소생활을 하는 선수단에 쉽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감 예방주사 맞기는 시즌 준비 과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정 중 하나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박성현

## 박성현 세계랭킹이 2위라고? LPGA 잇따른 행정사고 빈축

포인트 계산 실수로 1·2위 뒤바뀌어

전 세계 여자골프의 중심인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잇따른 실수로 구설에 올랐다. 기본적인 행정 부주의가 계속되면서 가까운 눈총을 받고 있다.

LPGA는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랭킹 1위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2위 아리아 주타누간(23·태국)의 순위 변경을 알렸다. 이 대회 직전까지 박성현은 8.18점, 주타누간은 7.87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끝난 상하이 챔피언십에서 박성현이 공동 26위에 그친 반면 주타누간이 공동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랭킹 순위가 바뀌게 됐다는 공지였다.

그러나 이는 계산 실수가 낳은 해프닝이었다. 주타누간이 다른 6명과 공동 2위에 오르면서 준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세계랭킹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이에 순위 역전 없이 기존 0.31점의 격차가 0.08점으로 좁혀지지만 했다. 결국 LPGA는 몇 시간 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박성현은 8.10점, 주타누간은 8.02점을 기록하면서 세계랭킹 변동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이미 국내외 많은 언론이 주타누간의 세계랭킹 1위 등극 소식을 알린 뒤였다. 지난해 6월 주타누간이 리디아고(21·뉴질랜드)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오르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던 LPGA로선 1년여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최근 LPGA의 행정 착오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우승국을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해 빈축을 샀다. 박성현과 유소연(28·메디힐), 김인경(30·한화큐셀), 전인지(24·KB금융그룹)가 태극마크를 품은 한국이 사상 첫 우승을 합작했지만, LPGA는 대회 종료가 한참 지난 뒤에도 우승국 자리에 미국의 성조기를 걸어놓았다. 비난을 접한 LPGA는 최근 태극기로 간판을 교체했지만 이 역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순서를 뒤바꾸는 실수를 범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한 층 빨라진 속도감으로 박진감을 더하는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골밑 전쟁이다. 심판진이 골밑에서의 몸싸움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치열한 자리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고훈준은 최진수(오른쪽)가 18일 서울 SK 원정에서 상대 수비진을 뚫고 골밑슛을 하고 있다. 정철 | 뉴스

## 골밑은 춘추전국시대

몸싸움 관대, 파울수 증가 득점 증가 단신 외국인 위주의 빠른농구도 한 몫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는 개막 이후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나타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경기 스피드가 빨라졌다. 이는 다 득점 경기로 이어지고 있다. 22일까지 팀 당 4~5경기를 치른 가운데 평균 득점 90점 이상을 기록한 팀이 4팀이나 된다. 개막 후 4연승을 기록한 울산 현대모비스는 평균 득점이 무려 103.8점이다. 한 경기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팀이 나온 것은 총 20경기 중 11경기로 55%에 달한다.

단신 외국인 선수들 위주의 빠른 농구, 골밑보다는 외곽슛 위주의 플레이, 국내 빅맨들의 존재감 과시 등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심판 판정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시즌 심판진이 경기 운영을 보면 몸싸움을 최대한 허용하는 분위기가. 외곽 수비뿐 아니라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져도 가급적이면 휘슬을 불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울 숫자 또한 지난 시즌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개막 후 20경기 기준으

로 경기 평균 파울수는 2017~2018 시즌에 19.3개였는데 이번 시즌은 17.0개가 나왔다. 명백한 파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흐름을 최대한 살려가는 쪽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더 이상 파울을 얻어내기 위한 골밑에서의 과도한 액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혹 센터나 파워포워드 선수들이 파울 휘슬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만족이다. 특히 경기 흐름을 자주 끊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큰 만족감이 표출되고 있다. A팀 감독은 "심판들이 골밑에서의 몸싸움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경기 자체가 흥미롭고, 빨라지고 있다. 리그 흥행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겼다. 이어 "문제는 판정 기준이 한 시즌 내내 지속되느냐. 판정의 기준만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몸싸움 허용은 무조건 찬성이다. 국제대회 흐름과도 맞다"고 덧붙였다. 다른 팀 감독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다. 간혹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만한 장면은 있지만 경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심판부의 현재 경기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벌써 지친 김선형·이정현, 대표팀 후유증

(SK) (KCC)

레이업 놓치는 등 체력문제 드러나

전주 KCC와 서울 SK는 지난 2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 첫 맞대결을 펼쳤다. 경기를 두 시간여 앞두고 KCC의 주포 이정현(30)은 체육관에서 배는 해달린(34) 코치의 지도 아래 슈팅 훈련에 나섰다. 20여분 간의 훈련이 끝난 뒤 그가 라커룸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SK 김선형(30)이 일찌감치 체육관에 나와 슈팅 훈련을 했다. 팀의 주 공격을 맡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별도의 훈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체력을 비축해야 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은 오프시즌을 온전히 국가대표 팀에서 보냈다. 2018 월리엄존스컵대회(대만), 2018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 이어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2차 예선까지 소화했다. 이정현은 "시즌을 두 번 치르는 기분이다. 솔직히 지쳐있다"고 말했다. 김선형도 지친 기

색이 역력하다. 한 구단 관계자는 "김선형이 경기 중에 레이업슛을 이렇게 놓쳤던 적이 있나 싶더라. 힘들기는 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현과 김선형은 체력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경기 전 훈련을 따로 할 정도로 컨디션도 좋지 않다. 이중고인 셈이다.

SK는 대표팀 후유증이 가장 심한 팀이다. 안영준(23)은 AG에서는 3x3 대표로 출전한 데 이어 월드컵 2차 예선까지 뛰어 체력 소모가 컸다. 최준용(24)은 AG 이후 피로골절이 오면서 1월까지 뛰지 못하는 상황이다. SK의 문경은(47) 감독은 "(김)선형이는 최대한 빨리 회복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고 하더라"라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대표팀 경기를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몸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이 곧 경쟁력 아닌가. 대한농구협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